

『大東文化研究』 논문 작성 지침

I. 제목, 필자,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참고문헌, 영문초록, 영문키워드

1. 투고논문 제1면에 제목, 필자,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를 제시한다.

1) 제목 이하 모든 내용은 **漢字 노출**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자의 이름은 “漢字”로 제시하고 소속을 반드시 명기한다.** 단 순한글이름일 경우 예외로 하고, 외국인의 경우 원어로 표기한다. (괄호 안의 소속은 편집과정에서 각주로 처리한다).

△ 예: 崔煥玉(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연구원)

△ 예: 柄谷行人(콜럼비아대 교수)

△ 예: Immanuel Wallerstein(예일대 석좌교수)

3)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한다.

△ 예: 조창록(성균관대 연구교수, 제1저자) · 최영옥(성균관대 연구원, 공동저자)

4) 목차를 제시한다. **章만 제시하고 節・項은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논문 초두에 200자 원고지 1~2매 정도의 국문초록과 **5~6개 정도의 주제어**를 첨부한다.

6) **이상의 제목, 필자, 목차, 국문초록, 국문주제어가 모두 1면에 들어가도록 분량을 제한한다.**

2. 논문 말미에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를 첨부한다.

1) 논문에서 참고한 주요 문헌을 각주와는 별도로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2) A4용지 1장 이내의 영문초록(Abstract)과 5~6개 정도의 키워드(Key Words, **국문 주제어와 통일**)를 첨부한다.

- 로마자 표기법은 맥킨-라이샤우어 표기법(McCune-Reischauer system)을 따른다.

- 영문초록 작성 시 제목 아래에 필자의 영문표기를 제시한다.

△ 예: Ahn, Dae-hoe

II. 구성

1. 章・節・項을 적절하게 나누고 각각 적당한 제목을 붙여 구성한다.

章은 I. II. III. 으로,

節은 1. 2. 3.으로,

項은 1) 2) 3)으로 표시한다.

2. 머리말, 맺음말 등도 하나의 장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III. 본문

1. **漢字 노출을 원칙으로 한다(괄호 안에 한문이 병기된 논문은 반드시 필자가 수정하여 제출).**

한자어의 사용은 고유명사, 전문용어 및 서술 의도를 분명히 하는 용어에 한한다.

2. 본문에서 문장부호의 사용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문장부호 사용원칙에 준한다.

1) 본문에서 문장을 인용할 경우, **인용문 안에 마침표를 찍는다.**

예: 그는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했다. (※ 인용문이 문장임).

예: 그가 말한 “운명의 힘”이란 이런 것이었다. (※ 인용문이 구절임).

2) 용어의 강조에는 **홀따옴표**를 사용한다.

예: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3) 용어에 대한 단순한 주석적 설명이나 별도의 용어를 제시하여 설명하는 경우 괄호를 사용한다.

예: 우리나라 유학자(東儒) / 소설(Novel) / 丙子年(1636)

4) 외국어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고 현지표기를 적는 경우 괄호를 사용한다.

예: 이또오 히로부미(伊藤博文) / 베르그송(Bergson, Henri) / 원취에(文學)

5) 생략을 표시하는 말줄임표는 **앞뒤로 반각(한 칸) 띄운다** : ∨……∨

6) 생몰년 및 어디에서 어디까지 : ~ (‘-’표시는 不可)

7) 본문에서 나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간점은 **반드시 전각기호의 중간점**을 사용한다.

(×) 서울·대전·대구·부산

(○) 서울·대전·대구·부산(코드번호 3404)

IV. 인용문

1. **한문 원문의 인용시 본문에는 우리말 번역문을 제시하고 각주를 통해 원문을 제시한다.**

각주에서 제시하는 한문 원문은 반드시 현대식 표기방식에 의하여 구두점을 표시한다.

1) 사료(자료)는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며 원문을 각주에 달아주도록 한다.

2)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문을 본문에 노출시킬 수 있다.

3) 매 인용문의 출전은 각주에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 지침 각주 항 참조).

2. 기타 외국언어로 된 자료의 인용시 필요에 따라 원어를 제시하되, 출전을 분명히 밝힌다.

3. **한시의 인용은 번역문을 상단에 원문은 하단에 표시한다.**

예:

嫦娥가 靈藥을 훔쳐

廣寒宮에 숨어드니

천제가 붙잡아 죄 물으려고

만 리 허공에 길게 에워쌌네.

嫦娥竊靈藥, 逃入廣寒宮.

天帝將捕治, 長圍萬里空.

V. 표, 그림

다음과 같이 표·그림의 번호와 제목을 단다.

<표 1> 사마천의 天象과 지류 대비

단위: √개

출전: 『史記』, 「天官書」, 1351면.

비고: (필요할 경우, 표에 대한 註記).

VI. 각주의 표기

인용하는 책의 書誌를 公衆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확하게 밝힌다. 漢籍의 경우, 영인본 여부, 소장처 및 영인한 출판사를 밝힌다. 예컨대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 널리 알려진 기본 자료라 할지라도 필자 자신이 참고한 판본(또는 영인본)의 서지를 정확하게 밝혀준다.

여기서 제시하는 각주표기 지침은 일반적인 분야의 것이므로, 특수한 분야의 경우 나름의 일관성과 公衆확인의 원칙을 유지하는 선에서 예외적으로 표기할 수 있다.

1. 著者, 「篇名」, 「書名」, 출판사, 간행년도, 面數, 인용내용의 차례로 제시한다.

2. 간행년도는 **년도만 표기하고 月은 표시하지 않는다.**

3. 인용하는 글의 面數 표시는 **‘면’으로 한다.**

‘p’ ‘pp’ ‘쪽’ ‘頁’ 등을 ‘면’으로 통일. 단, 영문서적 등은 예외.

4. 필자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줄고’보다는 필자의 이름을 그대로 쓸 것을 권장.

5. 원문을 인용할 경우, 인용처를 먼저 밝히고, 兪표를 찍은 후 그 내용은 “ ”안에 제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① 홍길동, √「의적의 개념」, √『의적연구』√1, √활빈학회, √1960, √100~101면, √“뒤편이라 √…… √또뒤편이라.”

② 홍길동, √「의적의 개념」, √『의적의 사회사』, √활빈학회, √1998, √100~101면.

③ 홍길동, √「의적연구」, √『의적학보』√1, √활빈학회, √1960, √100면(『의적의 사회사』, √활빈출판사, √1998 √재수록).

◆ 漢籍의 각주표기 ◆

經書,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高麗史』√권76, √百官1 √贊成事, “(忠烈王)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 事多稽滯, 仍罷之.”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書啓」(누구누구 소장, √刊本 여부)

1) 인용에 참고한 문헌이 근대적 출판물이 아닌 경우

著者, 書名, 권 구분, 篇名, 간행년도, 面數, 인용내용의 차례로 제시한다.

2) 인용에 참고한 문헌이 근대적 출판물인 경우 (영인본, 번역본 등)

著者, 書名, 篇名, 출판물명칭, 출판사, 간행년도, 面數, 인용내용의 차례로 제시한다.

(앞의 예를 뒤의 예처럼 수정 요망, 이하 동)

- (×) 金尙憲, 『月汀先生集跋』, 『淸陰集』 39권, 문 집총간 77, 594면.
 (○) 金尙憲, 『淸陰集』, 『月汀先生集跋』, 한국문 집총간 77, 민족문화추진회, 1990, 594면.

- (×) 『於于集』(경문사, 1979), p.316.
 (○) 유몽인, 『於于集』, 경문사 영인본, 1979, 316면.

- (×) “學者須就人事, 求其理, 然後可言知行兩進.”(『記言』 제1권 「答學子」)
 (○) 허목, 『記言』 권1, 「答學子」, “學者須就人事, 求其理, 然後可言知行兩進.”

◆ 일반단행본의 각주표기 ◆

출판사, 간행년도를 반드시 표기.

- 유명중, 『조선후기 성리학』, 이문출판사, 1985, 576~577면.

◆ 정기간행물의 각주표기 ◆

책의 넘버 만을 표기하고 ‘제○호’ ‘○집’ 등은 생략한다.

- (×)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대동문화연구』 제42집, 171-208면.
 (○)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171~208면.

정기간행물의 경우, 발행단체 또는 학회 이름을 표기한다. 대학 연구소의 경우 어느 대학 어느 연구소 인지를 밝힌다.

- (×) 金駿錫, 「조선후기 畿湖士林의 朱子인식」, 『백제연구』 제18집, 1987, 1~10면.
 (○) 金駿錫, 「조선후기 畿湖士林의 朱子인식」, 『백제연구』 18, 충남대 백제문화연구소, 1987. 1~10면.

書名을 통해 그 발행처를 짐작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발행 주체를 밝혀준다.

- (×) 지두환, 「朝鮮前期 『大學衍義』 이해과정」, 『泰東古典研究』 10집, 1993.
 (○) 지두환, 「朝鮮前期 『大學衍義』 이해과정」, 『泰東古典研究』 10,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93.

연재물일 경우, 연재제목 옆에 콜론(:)을 사용하여, 부제를 표기한다.

- (×) 변영만, 「色眼鏡」 제5 ‘各 民族性的의 索引」, 『조선일보』, 1932.10.2.
 (○) 변영만, 「色眼鏡 5: 各 民族性的의 索引」, 『조선일보』, 1932.10.2.

◆ 학위논문의 각주표기 ◆

학위논문은 「」로 표기한다.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등으로 표기.

- (×) 徐漢錫, 「月汀 尹根壽의 散文에 關한 研究」, 成均館大 碩士論文, 1999.
 (○) 徐漢錫, 「月汀 尹根壽의 散文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9.

◆ 번역서의 각주표기 ◆

저자와 역자를 밝히되 표기는 ‘저’와 ‘역’으로 한다.

(×) 楊國榮, 김형찬 옮김, 『양명학』, 예문서관, 1994, 42--61면 참조.

(○) 楊國榮 저, 김형찬 역, 『양명학』, 예문서관, 1994, 42~61면 참조.

(×) 勞思光 지음/정인재 옮김, 『중국철학사』(古代篇), (서울: 探究堂, 1986): 48~51쪽 참조.

(○) 勞思光 저,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古代篇), 探究堂, 1986, 48~51면 참조.

◆ 기념논총의 각주표기 ◆

(×) 진재교, <야담에 나타난 정절의식의 굴절양상>『벽사 이우성 선생 정년퇴직 기념 국어국문학논총』, 1990.

(○) 진재교, 『야담에 나타난 정절의식의 굴절양상』, 『벽사이우성선생정년퇴직기념 국어국문학논총』, 1990.

◆ ‘참조’ 표시 ◆

(×) 琴章泰, 「退溪 李滉의 學風과 思想」(『朝鮮 前期의 儒學思想』, 서울대 출판부, 1997) 참조.

(○) 琴章泰, 「退溪 李滉의 學風과 思想」, 『朝鮮 前期의 儒學思想』, 서울대 출판부, 1997 참조.

(×) 유봉학,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신구문화사, 1998) 「제1부 학계와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 참조.

(○) 유봉학, 「학계와 지식인의 사상적 동향」,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참조.

(×) 鄭玉子, 『조선후기 지성사』(일지사, 1991) 「眉叟 許穆의 學風」 참조.

(○) 鄭玉子, 「眉叟 許穆의 學風」, 『조선후기 지성사』, 일지사, 1991 참조.

(×) 李榮薰, 1987. 「古文書を 통해 본 朝鮮前期 奴婢의 經濟的 性格」(한국정신문화연구원, 『韓國史學』 9) 참조.

(○) 李榮薰, 「古文書を 통해 본 朝鮮前期 奴婢의 經濟的 性格」, 『韓國史學』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참조.

◆ 참고문헌 ◆

- 자료, 저서, 논문 순으로 배열

- 원고 본문 끝에 붙는 참고문헌에서는 마침표 생략

참고문헌은 아래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 박진영, 「일제 조중환과 변안소설의 시대」, 『민족문학사연구』 26, 민족문학사학회, 2004

◆ 앞의 논문 ◆

앞에서 인용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 '앞의 논문(책)'으로 표기한다.

한 필자의 여러 글이 인용될 경우, 연도를 표기하여 구별한다.

* '필자, +앞의+연도 논문', '필자, +앞의+연도 책'에 주의!

홍길동, V 앞의 1997 V 논문, V 100면.

홍길동, V 앞의 1988(a) V 논문, V 100면.

⇒ 그러나 이미 인용되었더라도 한참 뒤에 다시 인용할 경우 '홍길동, V 『의적연구』 V 『의적학보』 V 1, V 활빈학회, 1960, V 100면.'과 같이 가능한 한 원제목을 그대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영어권 原書 ◆

○ A. R. Zolberg, "Moment of Madness",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2, 1972, pp. 183~207.

◆ 發行地 표시 ◆

국내 인용서의 경우는 발행지를 표시하지 않으며, 외국에서 출판된 서적 중 필요한 것에 한한다.

○ 楊伯峻,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1981.

○ 鎌田正, 『左傳の成立と其の展開』, 東京: 大修館書店, 1963.

◆ 부제 ◆

논문 등에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목 뒤에 — 를 쓰고 부제를 적어준다.

○ 許均, 「洪吉童의 생애와 사상—유토피아 건설사상을 중심으로」, 『韓國文化』 10,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4, 23~25면.

◆ 다중인용 ◆

논문 여러 편을 한번에 참조한 주석을 달아줄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 楊國榮 저, 김형찬 역, 『양명학』, 예문서관, 1994; 勞思光 저, 정인재 역, 『중국철학사』(古代篇), 探究堂, 1986 참조.